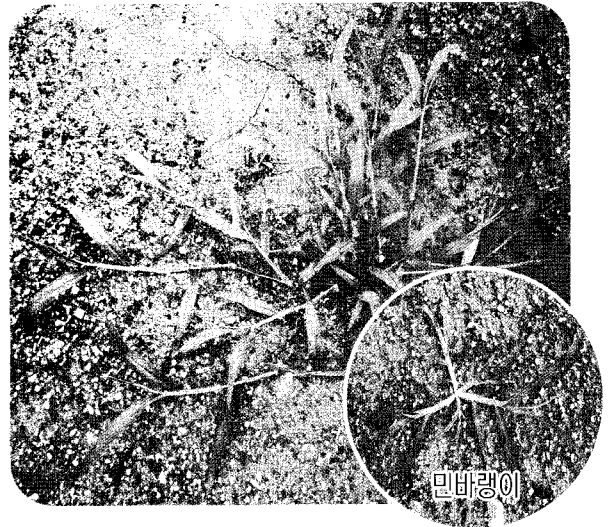


화본과 잡초

■ 이인용 농촌진흥청/농약평가과

바랭이

밭, 밭둑, 과원, 도로변 및 공한지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밭잡초로 일년생 화본과 잡초이다. 바랭이는 줄기의 밑부분이 지면으로 퍼지면서 마디에서 뿌리가 나와 측지(側枝)와 더불어 급격히 생육하게 된다. 이른봄에 출아한 것은 3~4개월후에는 성숙하고 1주당 50,000립 이상의 종자를 생산한다. 종자는 휴면성이 있어, 겨울기간의 저온습윤조건에서 타파되어 이듬해 봄에 발아한다. 작물 파종이나 이식 후에 토양처리 제초제의 살포로 억제시킬 수 있으며, 발생 후에는 화본과 잡초 방제용 경엽처리형의 제초제로 방제가 가능하다.



강아지풀



도로변, 밭, 밭둑, 초지 및 공한지에 많이 발생하며, 종자로 번식하는 일년생 화본과 잡초이다. 강아지풀은 C4식물로 광합성 능력이 뛰어나지만 뿐만 아니라, 수분의 소비는 C3식물인 작물의 반정도에서도 건물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건조기에도 작물보다 왕성히 생육할 수 있다. 작물 파종이나 이식 후에 토양처리 제초제의 살포로 억제시킬 수 있으며, 발생 후에는 화본과 잡초 방제용 경엽처리형의 제초제로 방제가 가능하다.

강 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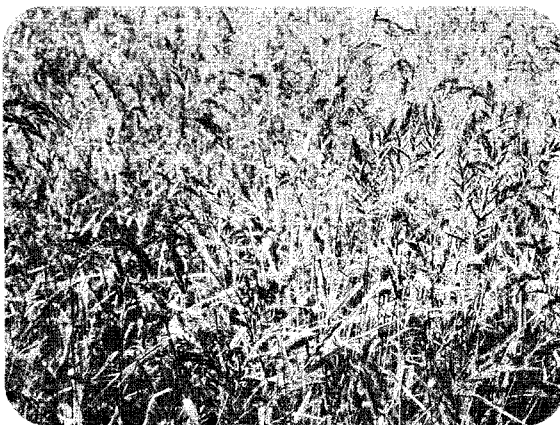
벼와 비슷하며 생육, 성장속도, 출수 등이 벼와 비슷하며 종자가 다른 피보다 크고 보통은 까락이 없으나 때로는 짧은 까락이 있는 경우도 있다. 논을 써레질하면 일제히 발생하며 발아해서 1주일만에 1엽기가 되고 보통 이앙기에는 5~6일마다 1엽씩 증가되며 5엽기가 되면 분얼을 한다. 대부분의 토양처리제를 피 발아전 또는 수중의 2엽이내에 살포하면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으나, 처리시기를 놓쳤을 때는 피 전문 경엽처리제를 사용하면 방제할 수 있다.

물 피

벼와 흡사하나 분얼이 잘 되고 초세가 크고 특히 이삭에 까락이 많고 길며 변이가 많다. 유식물은 피 중에서 특색있게 지면에서 짝짝 벌어지면서(70도 이상) 분얼한다. 흡살과 물깊이가 각각 1cm씩만 유지되어도 출아되지 않는 성질이 있는 관계로 물관리만 잘하여도 발생이 현저히 줄일 수 있다. 방제방법은 강피와 유사하다. 그러나 물피는 저온에서 발아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발아속도가 균일하여 제초제를 이용한 방제는 강피보다는 쉽다.



돌 피



논, 논둑, 밭, 밭둑 그리고 공한지에 발생하며, 초기 생육은 물피와 매우 비슷하나 초기 분얼이 옆으로 확산되는 형태이다. 출수는 물피와 비슷하며 논에서는 키가 가장 큰 피나 생태형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이삭에는 까락이 없다. 4~7월에 걸쳐 발생하며, 저온(10~20℃)에서도 출아하기 시작하여 출아소요일수가 4.1일로 피 중에서 가장 빠르다. 논에서의 방제방법은 강피와 유사하며, 토양처리제를 적기에 처리하면 방제가 가능하다. 밭에서 발생하는 돌피의 방제는 바랭이 방제방법과 대동소이하다. 